

AUTHOR 류혜옥, 김명련

TITLE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IN 기독교상담학회지, Vol.4 (2002)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류혜옥 · 김명련¹⁾

I. 서론

상담에 있어서 영성(spirituality)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근래에 나타난 현상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John & Ridly, 1992; Kelly, 1995). 미국상담협회(America Counseling Association)에 속한 상담자들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85%가 영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Kelly, 1995)에서 그 관심도의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인간을 전인으로 이해하는 전인건강(Wellnes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람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 관심 갖게 되었으며 개인의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경청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상담분야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사람들의 영성에 대한 관심들로 인해 초심리학에 근거를 둔 많은 연구들이 봄을 일으키

1) 고려신학대학교 교수

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에 몰두하기 시작하여 영성과 심리적 성숙과의 관계가 논쟁이 되어 왔다.(제석봉, 1998)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들은 종교서적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Henri Nouwen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이상미 역, 2002).

인간의 영성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성의 개념과 기독교 영성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영성은 인간존재의 본질에 관한, 전인적 삶의 방향성에 관한 것으로 인간활동영역의 한 부분으로써 이해하는 것이고,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와 또 우리의 동료인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으로서의 인간의 의식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ank와 Rebecca(1980)는 영성이 인간의 다른 측면 즉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인 면들을 종합하는 근본적이 힘이며 중심적인 핵(central core)이라고 하였고, Wakefield(1983)는 영성이란 인간 삶의 활기이며 생기를 돌우고 초지적(suspensible)실체들을 향해 뻗어 나가게 하는 태도, 믿음, 실천으로 보았으며, 김경재(1992)는 영성을 다차원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둘러싸고 구성하는 자연, 사회, 동료 인간과 신과의 교통과 만남 속에서 창출해 내는 전인적 생명 약동이요 믿음으로 보았다. 또 성공회신학자 Holmes(김외식 역, 1988)는 영성이란 인간의 관계 형성능력(a human capacity for relationship)이며, 감각현상을 초월하는 것이면서 그 관계는 주체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확장된 또는 고양된 의식으로서 주체에 의해 인식되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본질을 알고, 세계 속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하여 그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각기 다른 개념들과

의미들을 살펴 보고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개인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공허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 있으며 생명력 있는 관계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곤 거의 없어 보이는 혼란스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계시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증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증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영성의 개념

1. 일반 영성

영(spirit)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물질(matter)에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한다면, 영성은 다만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느낌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영을 신의 속성(what God is)에 입각해서 정의한다면 영성이란 지극히 좁은 의미로 또 지극히 종교적인 용어가 될 것이다(조옥진 편저, 1996). 영성의 의미를 종교적 용어로 긍정하면서도 어떤 철학적 조류나 혹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Ricoeur나 Heidegger(조옥진 편저, 1996)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성, 곧 자기 초월의 능력에 관해 탐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심오한 지식의 세계 안에서 혹은 자유로운 상호계약에 의한 애정의 관계 속에서 종종 드러나는 우리 자신을 능가하는 어떤 힘은, 인간의 자기초월성

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May(조옥진 편저, 1996)는 영성을 인간에게 힘(power), 기(energy), 행동력(motive force)을 주는 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일반적이면서 또한 특수하며 보편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였다.

영성은 환상일 뿐이고 오히려 현실직면을 방해한다고 믿었던 Freud와 달리 Jung(최해림, 2001)은 내적 초월 경험(inner transcendent experience)이 없는 통찰은 불충분하고 내담자의 진짜 문제는 영적 조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Frankle(최해림, 2001)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 욕구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개인의 의미가 반드시 영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욕구를 강력한 수단(avenue)으로 인식하였다. Allport(최해림, 2001)도 개인이 우주와 협의(treaty)를 맺지 않고 통정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면서 인간성장과 자아실현에서 영성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Maslow(1970)는 “영적 삶이란...인간의 본질적 부분이며...인간본성의 특징으로 정의한 바 있고” (p. 325), Fowler(1981)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인 내적 영적 과정의 통합의 중요성과 초월적 의미의 개인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영성을 신앙의 기초로서의 통합, 목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조합 그리고 삶의 의미라고 했다. Lightsey(1996)는 긍정적 사고, 용기, 자기 효능감 그리고 최적성 등과 같은 심리적인 자원은 전인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최적성을 영적개념으로 이해했다. 주관적 안녕과 영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최적성 또한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Myers와 Witmer 및 Sweeney(2001)는 영성을 마음과 몸의 물질적 국면을 넘은 인식기능의 부분으로서의 신념과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영성은 최근 인간의 전체성, 완성, 성취를 강조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궁극적 상태를 확인하고 수용하며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깨달음과 신비적 연합, 초월, 우주적 합치와 같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간

접적으로 도와 주려고 하는 초월적 상담에서도 드러난다(설기문, 1999). 김명권과 조옥경(2002)은 인간은 개인의 잠재 가능성의 개발을 통해 더욱 성장하려는 내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최고의 잠재력의 근원을 아스탕가 요가에서 찾으려고 한다. 아스탕가 요가에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규명하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마음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몸, 감각, 마음을 제어하여 초월의식을 달성하려고 한다. 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망을 조절, 통제하여 깊은 선정상태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고행법과 명상법이 요구된다. 또한 타로(Tarot)카드를 이용하여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발견하려 하는 경향도 있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카드 전체가 인류와 우주와 신의 참다운 본성을 포괄하는 철학 체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카드를 떼어서 펴놓고 명상을 하면 인간, 우주, 신에 관한 신비를 직관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는다(이선화, 2002). 설기문과 김기주(1998)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무지로 보고 상담은 그러한 무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 무지는 마음이 어떤 사건에 재반응 하여 조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무의식적으로 재반응 하여 조작하는 마음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며, 무상(無常)을 모르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려는 것과 나에 대해 집착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초월적 상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관점에서의 영성이란 초월적인 힘과 개인내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상이나 훌륭한 정신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수용하여 그 정신과 사상에 따라 살아 가는 것으로, 한 인간의 정신과 사상 심지어 삶의 스타일까지도 변하게 만드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자기 욕망을 절제케 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오성춘, 1990). 그러므로

일반적인 영성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을 수 없고, 궁극적인 실체나 초월적인 힘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나 인간자체가 된다. 따라서 영성은 일반적이고도 특수하며 보편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것, 곧 절대자의 절대적인 안배 안에 주어진 인간의 자기초월성-스스로와 관계를 맺고 인식하고 다짐을 주는 능력-을 실체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 것이다.

2. 기독교 영성

영성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리에츠 비방의 감독이었던 Faustus였다. 그는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라(Age ut in spiritualitate proficias)”는 말을 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영성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을 따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9세기 플라의 수도사였던 Candidus는 영성(spiritualitas)을 육체성(corporalitas) 또는 물질성(materialitas)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후로 영성이라는 말은 육체성 또는 물질성과 대립되고 쓰이는 전초가 되었다.

Aquinas는 처음에 “성령을 따르라”는 의미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후반에 가서는 Candidus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영성(spiritualité)이 경건한 종교적 삶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1930년대 및 40년대에 Gilson이 “영성신학과 역사”라는 강의를 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그 영향으로 영어권에서 영성(spirituality)라는 용어 사용이 점차 확산되었다(강경림, 1999).

1) 로마 가톨릭 영성

“영성”이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내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Holt(엄성옥 역,

1996)에 따르면 18세기와 19세기에는 신비가들의 생각들을 다루는 “신비신학”과 기독교인의 영성 훈련을 다루는 “수덕신학”이 구분되어 오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두 학문이 통합되어 “영성신학” 혹은 “영성”이 되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영성을 하느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한 인간의 존재 방식 혹은 완전한 인간성 회복과 관련된 존재론적이며 의미론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근본적인 가톨릭 영성은 가톨릭 교의에 뿌리를 박고 있는 영성으로써 교회의 저명한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들과 은총을 입은 인간 본성의 틀에 그 뿌리를 둔다. 이 근본적인 영성은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저서로부터 시작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직적인 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스콜라 신학 그리고 중세의 수도자들에게서 계승 발전된 수도영성과 신비영성 등을 들 수 있다(박현민, 1996). 20세기 초엽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며, 영성은 교리로부터 반드시 성장하고, 수도회의 수사들은 평신도보다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으며,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관조라고 주장하였다.

James(1985)는 영성을 한 개인이 자신의 전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안에서 자신을 종교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로써 모든 위대한 종교적 전통이 포함된다고 생각했으며, Aumann(이흥근·이영희 역, 1991)은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에 이르는 즉, 하느님 나라를 향해 열려진 참인간적 능력이고 인간의 어떤 부분적 구성요소가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넓은 의미의 영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넓은 의미의 영성은 인간행위를 유발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총칭하며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적 또는 초월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선의 영성, 불교도의 영성, 유대교적 영성 및 회교도의 영성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영성생활의 궁

극적인 목표로써 성화와 구원을 들고 있는데, 성화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영성생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이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영생 및 영광 속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써, 성삼위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사후의 영광스런 삶에서만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의 상태에서 죽은 모든 이가 얻게 되지만 아직 정화될 필요가 있는 이들은 정화가 끝난 때라야 비로소 천국에 간다는 것이다(강경림, 1999).

영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침으로는 명상적(kataphatic) 상상이 묵상의 방법으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양심에 비추어 보기(examination), 관상기도(contemplation), 구송기도(vocal prayer), 정신적인 기도(mental prayer)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영성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성화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 자체에 미치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의 역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개인의 한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개혁주의 영성

개혁주의 전통에서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경건”이라는 말이다. 영성이란 말이 가톨릭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함당치 않은 용어이기는 하나 이 용어가 오늘날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개혁주의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변종길, 2000).

개혁주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임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Velema(변종길, 2000)는 이것을 Calvin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

식(신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자기 지식)을 가지고 정의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과 이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 영성의 주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개혁주의 영성의 실천을 묘사하는 훌륭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 첫째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참된 목적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가 등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 자신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을 증거 하는 가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영성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오히려 순종적인 제자도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 Calvin(황성철 역, 1998)은 우리가 율법과 그 숨막히는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기쁨과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응답하고 그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창조된 질서에 감사해야 하고 이 땅의 삶에서 주어진 선물들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영성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낮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는데 다음과 같은 독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경건(spirituality)이다. 경건이야말로 Calvin신학의 핵심적 개념이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신뢰, 거룩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복종은 경건의 열매인데 경외란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으로써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며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the Union of christ with the believer)이다. Calvin(한철화, 1992)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에게 접붙임을 받았고 우리는 그를 옷 입었다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가 가진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그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몸에 접붙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자로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와 하나의 실체가 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고한 경건의 단계를 머리와 지체간의 결합,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내주함, 그리고 신비적 연합(the mystical union with christ)이 비로소 영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거하신다. 하나는 영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제시하심에 있고, 다른 의미는 우리를 그의 의로움의 분담자로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살피 보실 때에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신비적 연합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살아 있는 결합력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와 연합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이 연합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의 영혼과 몸과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이 친화력은

그와 우리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와 영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통로이다. 모든 사람이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말씀이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때 우리에게 이신 칭의, 회개, 성화 등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자로 사용하시든지 또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행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 오도록 계획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항상 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Calvin(Battles translator, 1960)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인식한다. 말씀이 모든 사람을 불러 그리스도께 참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성서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는 기도이다. Calvin(Battles translator, 1978)은 “영성은 바로 기도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써 기도를 강조하였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것으로 Calvin의 기도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교제로써의 기도이다. 또 기도는 자기점점과 깊은 관계가 있다. 기도시간은 자신을 새롭게 조명해 주며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자신을 개방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은혜에 순종하는 방법인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감사생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감사의 주

요부분이요 끊임없는 기도로써 그에게 간절히 간구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다섯째는 실천적 영성이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개인의 내적인 삶과 내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의 일에 대한 참여를 전망하지 않는다. 즉,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과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위치는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처소라고 생각하는 소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의 본질자체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Calvin의 영성은 세상에서의 실천성의 삶을 강조하여 개인 내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기도와 같은 개념들과 조화를 이룬다.

여섯째는 공동체적 삶 -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경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성적 삶의 훈련에 있어서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은혜의 중요한 수단들로는 하나님 말씀, 기도, 윤리적 생활, 교회공동체를 통한 예배 성례전 교회생활에서의 참여를 들 수 있다. Calvin은 『기독교강요IV권』에서 모든 경건한 자녀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attle translator, 1978). 믿는 자가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게 되는 것은 교회이며, 성도가 은혜의 수단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먼저 예배로서, 진정한 경건의 의미 자체이자 동시에 기독교인의 영성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예배에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시되고 확인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창조하며, 그리스도안에서 죄인이 용납되고 용서함을 받음에 대한 징표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성례의 의식으로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

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기회이다. 따라서 성례는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충실함을 유지하는 주된 방법이다. 말씀이 청각적(audible form) 형태라면 성만찬은 시각적(visible form)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 전체성(the wholeness of the Gospel)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두 가지 형태 모두가 필요하다. 은혜의 공적수단으로는 교회생활의 참여를 강조한다. 주일 성수는 영적 삶을 위한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휴식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진다.

Ⅲ.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

개혁주의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것,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에 기초한다. 그리고 인간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 받은 그 본래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영성을 인간의 한 국면으로 이해하기 보다 인간과 인간의 삶 전체-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인간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방법-로 이해한다면 인간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자원의 최적 발달을 성취하도록 돕는 상담은 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 최적의 삶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만족과 최적성을 돕는 상담의 사역을 위해서는 개혁주의 영성의 특징들을 기본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적 인

간관, 성경관에 따른 이해를 상담의 전제로, 죄에 대한 인식, 고백 그리고 권징과 회개를 상담의 특징으로 설명하면서 상담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혁주의의 독특성으로 볼 때 상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해 제언하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1. 상담의 기본 전제

1) 하나님중심 인간관

인간을 어떻게 바라 보느냐 하는 것은 일반 상담에서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상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주의 영성의 입장에서 인간은 첫째,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이다. 인간은 원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피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완전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의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둘째,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존재이다. 아담의 범죄는 인간성 전반에 타락을 가져 왔고 그로 인해 인간은 비참함과 가난의 고통과 분열된 인격의 문제 등을 갖게 되었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도 타락의 결과이며 인간 스스로 타락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능력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며 인간은 은혜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인간은 원죄와 그로 인해 오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셔서 택한 자들을 작정대로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신 것을 잇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비참함에 대한 해답을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것이고, 반복되는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2) 개혁주의 성경관

개혁주의 성경관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계시로 본다는 것이다.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기록에 이르기까지 영감 하시며, 그 기록을 종결하시고 종결된 기록을 자신의 말씀으로 확증하기 위해 조명하신다는 것이다(김영규, 2000). 개혁주의 성경관은 이러한 계시로서의 말씀을 오직 성경(*sola scriptural*)과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Calvin은 성경을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버리지 않고 전체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진 계시(성경)로 이해되며, 계시의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드러내는 데에 중심을 둔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전할 때에는 나의 뜻에 합당한 주관적, 문자적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드러내신 성삼위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말씀 속에서 계시자 자신이 일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서 말씀의 절대권위를 인정하고 상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인간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상담의 특징

1) 죄에 대한 인식

일반 상담에서는 인간의 자율성과 선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각성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이해가 커질수록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인성을 깨닫게 된다. 그 깨어진 인성의 중심에는 원죄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인간의 만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상담은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2) 고백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백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고백은 그에 의해 교회가 개인적인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방법이자 목회적 보살핌의 한 표현이었다. Calvin(황성철 역, 1998)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아실 수 있으며,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개인기도에서건 공적 기도에서건 모든 고백은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고 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은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상담의 주요 근원이 되었다. 고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인기도를 통한 고백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지만 개인적인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한 것을 말하고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약점들을 말하면서 상호간의 상담과 위로로 서로를 돕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성도들을 더욱 주위 깊게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이며, 죄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에 있어서 고백은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일반상담에서의 한계는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한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타락의 결과로 볼 때,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의 과정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3) 권징과 회개

흔히 권징이라하면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징벌이 아니라 회개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교회의 권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잘못된 사람이 회개를 통해 돌이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권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딱칠 위협을 경고하며, 그들의 행동을 책임질 것을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못함으로써 은연중에 악을 조장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앓을까 하는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이 서로를 돌아보는 데 게을러지게 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관용이 제일의 덕목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서 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권징은 성도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서도 권징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중심적 상담에서처럼 인간의 본래적 자율성과 선택을 신뢰하므로 그의 각성에 대한 능력을 의지하기에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며 이것은 말씀

앞에서 조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즉 공적 차원에서가 아닌 상담자와 내담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를 회개케 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상담의 원리

1) 상담의 목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상담은 인간이 하나님께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것은 인간이 소유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며 그 외의 상담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유용성을 가질 뿐이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상담과정

상담은 내담자에게 어떤 고통이나 근심을 일으키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거나 지금 여기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수용과 공감적 자세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영성의 입장에서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다. 즉 기도로 내담자의 실패, 죄, 죄의식, 근심, 미해결된 과제 등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가운데 고백의 시간을 가지고 뒤이어 용서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 과정을 통해 성령의 통치하심과 인간의 근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호간에 알게 함으로써 주권을 하나님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

런 후에 상담을 구조화하고 상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불안의 취급과 상담자의 적절한 기술을 통해 비효과적인 내담자의 패턴을 작성시키는 일반 성장상담에서의 과정을 밟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3)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인식

상담자와 내담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동일한 수준에서 피조된 같은 인격적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할 수밖에 없다. 직분의 역할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담자의 우월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취할 그리스도인 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4) 하나님 계획에 대한 기대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쏟는다. 어느 누구도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지나친 열정을 쏟아 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 상담이란 무의미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Johnson (1987)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변화들을 일으키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대해야 한다.

5) 인내

인내는 내담자와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를 지나치게 바라는 우리의 자연적 성향 때문에 내담자의 마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 내담자에게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고, 더디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담자의 반응에도 내담자와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6)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상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상담자와 내담자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내담자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기도가운데라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7) 독특성에 대한 존중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방법을 부과하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내담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문제를 상담자 보다 더 많이 안고 있긴 하지만 상담자 역시 문제를 갖고 있는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상담자와 내담자 각자에게 독특하게 역사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어떤 기결된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정직

상담자의 진솔한 자기노출은 상담 관계를 신뢰롭게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정직하기 위함이며 내담자의 문제에 대

한 직면을 내담자로 하여금 진실 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준다. 믿음에 대한 깊이 개인적인 체험, 정기적인 예배 참석, 개인적 기도 훈련, 인간 심리에 대한 전문적 이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상담에 대한 동기의 정기적인 점검, 교회 공동체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지식,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소명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마음, 스스로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내담자에게 정직하고 솔직 하려는 의지와 노력 등이 요구된다.

IV. 결론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 대체로 기본욕구의 충족, 타고난 능력과 가능성의 실현, 자주성과 독립성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Fromm이 말한 권위주의적인 종교에서와 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맹목적인 순종과 의존을 통한 자기부인과 자기희생이 요구된다면 이러한 영성은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상담자들은 교회의 무조건적인 교리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영성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영성이 결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석봉, 1998). 개혁주의 영성은 진정한 영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초자연적 진리와 계시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구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성의 발달을 통한 심리적 성숙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영적 성숙은 심리적 성장과 성숙을 발달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영성발달 또한 촉진될 수 있다(Kelly, 1995).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다양한 입장에서 영성을 정의하여 시도하고 있

지만 편협 되고 불완전한 인간존재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영성을 말하면서 초월적 인간상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에 기초한 상담은 유신론적 신앙(有神論的 信仰),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자기인식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가 전제 되어야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로서,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인 자로서,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요, 그에 대한 고백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걷은 땅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화 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영성에 기초한 상담, 즉 하나님중심 인간관, 개혁주의 성경관에 기초한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권징과 회개, 이웃으로서의 상담관계, 상담을 통한 하나님에게로 향한 신뢰와 소망 등이 더욱 발전된다면 보다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혼란스럽고 난무하는 이론들과 가치들 속에서 상담이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심리적으로 눈먼자가 앞을 보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영적 성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림(1999). 기독교 영성과 성화에 대한 소고, **영성과 경건**(pp. 235-267.), 기독교문서선교회.
- 김경재(1992). **종교다원 시대의 기독교 영성**. 다산글방.
- 김명권 · 조옥경(2002). 요가의 심리치료적 가치-아스탕가 요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3, 256-257.
- 김영규(2000). **조직신학 편람**.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 김의식 역(1988). **목회와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 박근원 역(1988). **전환기의 선교교육**. 한신대학교 출판부.
- 박현민(1996). **치료적 상담이론의 전인적 완성과 영적 지도의 기초적 확립을 위한 영성적 상담론에 관한 기획**. 석사학위 논문, 수원가톨릭대학교.
- 변종길(2000). **화란 개혁교회의 영성과 경건-Gisbertus Voetius를 중심으로**, 성경신학회 발표 논문, 사랑의 교회.
- 설기문 · 김기주(1998). 상담에의 현상학적 접근-명상수행을 통한 반응의 해결, **동아논총**: 동아대학교, 3, 105-120.
- 설기문(1999). 최면에 대한 이해와 최면상담적 접근, **학생연구**: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7, 105-128.
- 엄성옥 역(1996). **기독교 영성사**. 서울: 은성.
- 오성춘(1990). **영성과 목회**.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 이선화(2002). **타로(Tarot)**, 한국상담학회연차대회 워크샵자료집. 한국상담학회.
- 이상미 역(2002). **영적발돋움**, 두란노.
- 이홍근 · 이영희 역(1991).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왜관: 분도출판사.
- 전광식(2000). 경건의 길-신학사에서의 경건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한 비판적 논고, **고신신학**: 고신대학교 고신신학 연구회, 2, 62-100.
- 제석봉(1998).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종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의 문제. **효성가톨릭대학교 논문집**: 효성가톨릭대학교, 58, 37-56.
- 조옥진 편저(1996). **성격유형과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성서사.
- 조형경(1983). **실존철학**. 박영사.

- 최해림(2001).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I. 한국영성 및 심리치료협회 홈페이지 자료.
- 한철화 역(1992). 기독교 강요. 생명의 말씀사.
- 황성철 역(1998). 개혁주의 영성. 기독교문서선교회.
- Banks, R., & Rebecca, A.(1980). Health and spiritual dimension: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0, 195-202.
- Battles, F. L. translator(1960). *Institutes for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Battles, F. L. translator(1978). *The Piet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5-29.
- Fowler, J. W.(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 James M. L.(1985). *The Spirituality of The Religious Educator*, Birmingham: Religious Press.
- Johnson, B. C.(1987). *To Pray God's Will: Continuing the Journey*, Philadelphia: Westminster. 91
- Johson, W. B. & Ridley, C. R.(1992). Sources of faith in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 159-175.
- Kelly, E. W.(1995).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counseling psychotherapy*. VA: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ightsey, O. R.(1996). What leads to wellness? The role of psychological resources in well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24, 589-759.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Y: Harper & Row.
- Myers, J. E., Sweeney, T. J., & Witmer, J. M.(2001) *The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 An instrument for assessing and planning wellness lifestyles*. California: Mind Garden.
- Wakefield, G. ed(1983).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361.

Abstract

**A Study of Reformed Spirituality and
Counsel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where spirituality problem is much more highlighted in the area of counseling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generally understood spirituality, and also its spirituality taken from a view of Christian, especially as reformed position. Also, the relation between reformed spirituality and counseling, and how they have to be developed were also studied in this research.

Related to the essence of human being's existence and direction of whole-rounded life, and also understood as one of the activities' area of human being, the general spirituality doesn't have absolute value, and its final entity and transcendental power are human being itself. That's why the limit as creature existing inside the human nature and problem of a sin cannot be solved out, whereas reformed spirituality is men's response to the God's call, and it is a process to

practice and realize it in their actual life accepting a supernatural truth and revela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very close relation with the mental maturity through a proces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With a prerequisite to human nature focused on God and its view on the Bible, the spiritual maturity through counseling based on awareness of a sin, confession, and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of the church and repentance - becomes the basic power to develop a spiritual growth of human being and also promote its spiritual development through mental stability.